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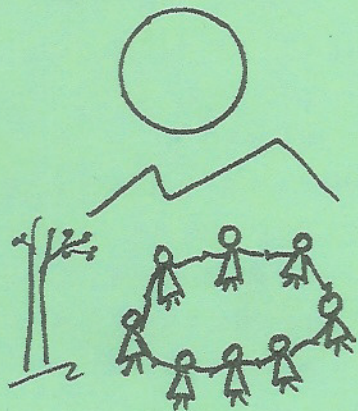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5주일/한가위(순교자 성월)
제27권 43호 (다해) 2007.9.23

[묵상]



한 가 위 소 망

한 : 한 믿음, 한 마음에 세워진

우리 백삼위 사랑의 공동체

가 : 가슴 깊이 감사하고 나누며

일치하는 주님의 백성

위 : 위로는 하느님께 영광을

아래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

● 박상대 신부 그림/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국수창과 이복현 마리아
	(생)성유진 로렌스와 시몬, 엘리사벳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앞서 가신 조상들과 부모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 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생)남가주 순교자 현양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배재일 마카엘, 이중민 요셉, 최애경 안나 채수환 마데오, 김영순 엘리사벳 유이성,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엘 예언서 (Joel) 2,22-24,26ㄱㄴㄷ
화답송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도다.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저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도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셨도다. 세상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요한묵시록 (Revelation) 14,13-1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 음	루카 (Luke) 12,15-21
영성체송	주님,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르나이다. 주님께서서는 땅에서 빵을 얻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내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4	240
봉헌	258	256,264
성체	402	301,309
파견	241	201

4. 천주교 소개

▶전례(liturgy)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미사를 비롯하여 천주교의 공식적인 경신례(敬神禮)를 전례(典禮)라고 한다.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뜻한다. 전례를 통하여 신자들은 하느님을 공적으로 흠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 또한 신자들은 형제적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미를 이룬다.

천주교의 대표적 전례인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치신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를 이루는 거룩한 잔치다. 신자들은 주일(일요일)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특별한 날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성당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정하여 여러 차례 주일미사를 드리는데, 신자들은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미사에 참석하게 된다. 미사에서 신자들은 주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면서 주님을 대하기 위하여 일어선다. 편안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앉는데, 이는 우리의 생활 관습과 다를 바가 없다.

▶교구(敎區, diocese)와 본당(本堂, parish)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道) 단위 지방 자치 단체와도 같은 커다란 지역을 일컬어 교구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황이 임명한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신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행정 구역을 말한다. 교구는 좀 더 작은 신자 공동체인 본당으로 나뉘는데, 주교들의 협조자인 신부들이 상주하며 신자들을 보살핀다.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가까운 이웃의 몇몇 가구가 모여 구성하는 작은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구와 본당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한다. 본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처럼, 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적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에 나아가 전교 사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당은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터전이다. 본당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주임 신부가 상주하고 있으며, 전교 수녀와 사무실 직원이 협력하고 있다.

▶예비자와 예비신자

천주교 입교를 위하여 교리반에 등록한 사람들을 '예비자' 라고 한다. 예비자는 단계적 입교과정 중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하여 '예비신자'가 되며, 직접적으로 세례성사를 준비하게 된다. 예비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존 신자들과 하나가 될 형제자매들이다. 예비신자들은 신자들이 누리는 영적 혜택들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천주교의 공식 경신례인 미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모임과 소공동체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비신자의 장례 역시 세례 받은 신자와 똑같이 이루어진다. 한편 예비신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신앙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신부나 수녀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다. ◆CBCK제공 <계속>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한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이상한 유언을 남겼다. 유언인 즉,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나의 양팔을 밖으로 내어 놓은 채 장례를 치러라.”는 것이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식을 치른 후 며칠이 지나 큰아들이 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 유산을 몽땅 털어 자선사업을 하자고 했다. 그는 아버지 유언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불교계의 진리와 같은 가르침이다. 누가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땅문서를 손에 쥐고 이 세상에 나왔거나, 돈을 쥐고 나온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을 때면 아무 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운명의 존재이다. 일 켄트짜리 동전은 고사하고 지푸라기 하나도 쥐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떡하든 많이 가지려 애쓰는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현대판 금송아지를 인생의 전부이며 목적인양 착각하며 산다. 돈으로 모든 것이 계산되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은 거의 모든 현대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돈은 더러운 것’ 이라들 말하지만 이 더러운 돈을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편하다. 그러나 이런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돈방석에 한 번이라도 앉아 보면 다른 소원이 없겠네, 죽어도 좋겠네!” 라는 말을 일삼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혹자는 “공수래공수거”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요즘같이 물질이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수래(滿手來)”의 행운에 빠져있으니 말이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

면 으레 “만수거(滿手去)” 하려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며,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것은 우선 생명이다. 생명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이 있으면, 다른 것은 덤으로 주어지며, 많은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다. 시간, 능력, 건강, 재물, 권력, 명예, 배우자, 자녀 등이 그런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에, 즉 육체를 가진 동안에 사람은 이런 소유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모두 소유한 것에서 손을 떼야하며, 놓아두고 가야한다. 결국 이것들을 주신 하느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 복음(루카 12,15-21)에서 보듯이 부자는 밭에서 난 소출을 전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다.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자의 잘못은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고 한 약속에 있다. 사람이 현재의 소유를 마음껏 누릴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감히 한치 앞을 예견하며, 몇 년 앞을 아무 걱정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장담하던 바로 그날 밤에 부자의 생명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모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재물을 탐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재물이 자신의 전부이며 생명과 미래까지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물질에 속하는 육체가 없으니 육체와 관계되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따라서 영혼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이 계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적고 간에 한가위의 보름달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듯이 모든 것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았으면 좋겠다.◆

• 박상대 마르코 신부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시아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유철희 바오로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황지영 안젤라	주일학교 크리스티나윤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원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민상 요한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델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카슨/하버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다음주일(9월30일) 남가주 순교자 현양대회 미사 중에 특별헌금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3,399단 ☞ 총 합계: 193,499단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9월25일(화)은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틀 앞선 오늘 23일 주일미사에, 앞서 가신 조상들과 부모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니다.

●연도와 분향: 23일 주일 낮미사 중

- ◆ 주일 학생미사 9월30일(주일)부터 재개
 - 그동안 방학중이던 학생 영어미사가 9월30일(주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여름방학 동안 들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일미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기간: 9월23일(오늘주일)까지
 - 대상: 유치부(K)~ 12학년
 - 1년 등록비: 첫째아이 \$100, 둘째아이 \$80, 셋째아이 \$60, 넷째/다섯째는 무료 (23일 이후 등록시는 \$10 추가됩니다.)
 - ※자모회비: 가정당 1년에 \$40

◆ 2007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주님을 향해 불타는 신앙을 증거했던 한국순교자들을 높이 드러내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우리본당 주최로 열립니다. 많이 참여하여 선조들의 뜻을 기립시다.

- 일시: 9월30일(주일), 오전 10시30분
- 내용: 김대건 성인 유해 거동, 대미사, 점심식사, 성극 공연(정하상 바오로 성인 생애), 순교 자료전시
- 주례: LA대교구 Alexander Salazar 주교님.

San Pedro 지역

◆ Homeless People 도울 봉사자 찾습니다.

- LA 다운타운(4가+5가)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동참할 형제자매들을 기다립니다.
- ☎ 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최림 안젤라의 피아노 독주회에 초대합니다

본당 주일 아침미사 반주자로 봉사하는 최안젤라 자매가 이번 리사이틀에서 바흐, 모차르트, 슈만의 피아노곡을 연주합니다.

- 일시: 9월30일(주일) 오후7시, USC Newman Recital Hall Gate#3(McCarthy Way at S. Figueroa St.)

◆ 한국어 혼인전 강좌

혼인 예정자들은 이 강좌를 꼭 들어야 합니다.

- 일시: 9월 29일(토) 오전 8시~오후5시
- 장소: 성 마태오 성당 강당
- 문의: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 818-242-4377
- ※ 신청: 9월24일까지(신청서는 본당 사무실에 비치)

구인

◆ 직종: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연봉: \$50,000/한국어와 영어 필수

☎ 714-727-7104 Amy Beaty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국세찬 권태만 김관기 김교복 김병태 김상익						국세찬 권태만 김관기 김교복 김병태 김영미					
	김영미	김 옥	김정희	김찬구	김철민	문충한	김 옥	김정희	김찬구	김철민	문충한	민봉식
미사헌금: \$ 2,712	민봉식	박수익	송기철	신대식	안동훈	엄세종	박수익	신대식	안동훈	엄세종	오기석	이병찬
	엄영희	오기석	윤석구	이규형	이병찬	정규숙	이일길	정규숙	정동호	정연영	주대중	지경수
	정동호	정연영	주대중	지경수	최미열	최수나	최미열	최원석	최재은	하정화	한금순	한창주
	최원석	최재은	하정화	한금순	한창주	크리스리						
	합계: \$ 3,970						합계: \$ 2,830					

공지 사항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 9월23일 추석맞이 : 성모회가 전신자들에게 추석맞이 떡을 나눕니다.
소공동체가 요셉회와 만나회 어르신들께 추석음식 상을 차려 드립니다.
- 9월30일 순교자 현양대회: 대건회와 원서부부회가 순교자현양대회 날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음식부스를 마련합니다. (맛있고 푸짐한 음식값은 \$5 균일)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 9월14일(금)~9월27일(목)
- Lee & Lee 갤러리(3130 윌서 불리바드 #502)
- 28명의 신자 화가들이 출품하는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1열왕 9장3절) 입니다.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 제1회 정기 연주회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Jubilate Korean Catholic Choir)가 제1회 정기연주회로 교회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자선공연을 갖습니다.
- 공연일시: 9월28일(금) 오후 7시 30분
세인트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 지도신부: 박상대 마르코 신부(백삼위 한인성당 주임)
지휘: 김정숙 클라라(성 마리아 성당)
- 문의: 황베로니카 ☎ 310-279-8184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기금모금 골프대회

- 9월29일, 다우니 Rio Honda Golf Club
- 우리 본당 골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최기남 야고보 백삼위 골프회장 ☎ 310-569-3940

◆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일시: 9월29일/10월25일/11월29일/12월27일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테마별로 강좌
-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선남선녀 만남의 장 제 4기

- 일시: 11월9일(금)~11일(주일)
- 장소: 데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신청자격: 26~39세 미혼남녀, 참가비: 숙식포함 \$250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이번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변혜경 율리야나 787-7493 9/7(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텔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텔라스타카 782-1025 9/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김지희 세실리아 539-3396 9/20(목)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시몬, 김철수 320-2425 9/15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구패트릭&마리아나 214-8468 9/23(주일) 오후 5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오호순 모니카 213-633-3366 9/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세종 그레고리오 373-5662 9/21(금) 오후 8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이정수 헬레나 530-0357 9/11(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임형미 사비나 325-681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9/14(금) 오후 7시, 성당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9/29(토), 오후 6시, 리돈도 비치 H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서창호 바오로 257-1784 9/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베드로&요세피나 997-9006 9/14(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매아나스타시아 544-9460 9/14(금) 오후 7시 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9/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9/14(금) 오후 7시30분

나누기 둘, 그리고 하나의 권고

59차 남가주 ME를 다녀왔습니다. 감명을 나누라는
신부님, 수녀님의 뜻이 계시어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현기증이 나도록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는가 하면 다른 하나가 또 떠오르고..
하나가 아직 해결 안 되었는데, 여러 개의 문제가 엄습하여
우리 숨소리 가파르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발생의 근원지이면서 해결의 심연(深淵)이기도 한...
작은 교회라고도 불리는 가정의 모습을
사랑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언제나 늦지 않는 우선순위 1위의 문제 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ME 참가의 감명이 여럿이 있으나
그중에 I,II를 나누며, 제 60차 ME 참가를 권유 드립니다.

감명 I

봉사 부부들 그리고 지도 신부님의 혼신을 다한 봉사의 모습은
마치 초가 그렇게나 자기를 철저히 뜨겁게 불살라
주위를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었습니다.

감명 II

내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나의 배우자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얽히고 힘들어야 할 일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중 배우자가 유명(幽明)을 달리했을 경우를
가상해 조사(弔詞)를 쓰게 합니다.

弔詞 (나의 또 나의)

나의 사람..나의 여인..내 뼈의 살..
나.. 그 자체인 나의 사랑
나의 아내 영전(靈前)에...

눈을 떠 보구려
그만 자고 눈을 떠 보구려
내 마음 그만 흔들고 눈 한번 떠 보구려
입가의 미소 지어 보구려.
그만, 자는 척 하지 말고 웃어 보구려.
내 영혼 그만 찢어내고 한 쪽만이라도

하이얀 소청 걷어차고 일어나 보구려.
단아한척 안 해도 좋으니 벌떡 일어나 보구려.
나 이제 무릎 꿇고 애원할 테니 일어나 보구려.

22년이나 내가 좋아 한다며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지 못하고
나의 말이면 무조건 따라 주던 사람

그 고집쟁이 말에 얼마나 피곤하였고 지쳤으면
이제는 가는 길이나마 내말을 거역한단 말이요

무엇을 보이기가 싫어
평소에 안 하던 화장대신
흰가루 질게 바르고 누워 있어야 하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단 말이오
아이들 일이라면 앓다가도 일어나지 않았소.
아이들의 결혼식에 장식할 꽃의 향기도 맡아 보아야 하고
손자들의 재롱에 물안개 피우며 즐거워야 할 날이
그리 멀지 않거늘
이 매캐한 향로에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는 무엇이고
신자들의 저 애절한 연도는 또 무슨 소리란 말이오.

나

이제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며

나

이제 입은 있어도 열지 못할 것이며

나

이제 숨을 쉬고 있어도 숨소리 나지 않소.

심장은 있으되 움직이지 않고

뇌파는 있으되 아무 반응이 없는 나...

나 또한 당신 옆에 누워 있소 싸늘하게 말이오.

나의 사람.

나의 여인.

내 살의 뼈.

나.. 그 자체인 나의 사랑.

나의 아내.

나 그대 곁에 머리 풀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죽어 가고 있다오

이렇게...

♥ P.V. 1반 최진수 에우세비오